

행복한 거야
나팔꽃



‘나의 노래-꿈’

수하갤러리 12월 1일부터 임근재전

나팔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밝은 등(燈)을 밝혀 놓은 듯 화폭을 수놓는다. 그리고 노래한다. ‘기쁜 소식’이라는 꽃말처럼 작품 속 나팔꽃들은 희망을 노래한다. 우리들의 소소한 얘기에도, 삶에도 그런 기쁨들이 존재한다고.

‘나팔꽃 화가’ 임근재 작가가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광주 동명동 수하갤러리에서 ‘나의 노래-꿈’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올해 열린 ‘제3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에서 서양화 우수상을 수상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사간동 광주시립미술관 GMA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작가가 유화물감으로 정교하면서도 투명하게 그려낸 나팔꽃들이 만들어내는 향연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배경을 밝은 색으로 처리해 나팔꽃과 벌, 여인 등 이미지를 돋보이게 한 작품들이다.

30여 년 동안 남도의 정서를 담은 풍경과 꽃을 주로 그려온 임 작가가 나팔꽃에 매료된 것은 지난 2009년이다. 매일 아침 창성 집에서 광주 작업실로 향하던 그의 눈에 어느 순간 이슬을 머금은 채 화사하

고 강렬하게 피어있는 나팔꽃의 모습이 들어왔다. 어쩌면 작가는 화려함보다 밤새 숨죽여 있다가 아침에 꽃을 피워 출근길에 ‘오늘도 행복한 거야’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나팔꽃의 모습에 매료됐는지도 모르겠다.

무리지어 피는 나팔꽃의 이미지들과 달리 홀로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은 쓸쓸해 보인다. 삭막한 공간에 갇혀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비치기도 한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오후에 지고 마는 나팔꽃의 모습처럼 항상 화려한 것만을 좇지 말라고.

최근 ‘나팔꽃’ 연작에는 여인이 등장했다. 어릴 적 동심을 자극하는 나팔꽃 사이로 전통혼례를 앞둔 여인과 그리고 소소한 아름다움을 해금으로 연주하는 여인의 모습이 작품에 무게감을 더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임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전시 개막행사는 12월 1일 오후 4시다. 문의 062-226-848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윤두서 자화상’
5만6069명과 대면

〈11월 26일 현재〉

국립광주박물관 ‘윤두서’전 성황

“나 자신 돌아보고
애민정신 공감돼
정치인들 꼭 보길”

내년 1월 18일까지 계속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



‘채에도(나물 캐기)’

“6척도 안 되는 몸으로/ 사해를 초월하려는 뜻이 있네/ 긴 수염 길게 나누기는 얼굴은 기쁘고 붉으니/ 바라보는 자는 신선이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저 진실로 자신을 양보하는 기쁨은/ 무릇 돈독한 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구나.”

조선 후기 문인화가이자 평론가로,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1668~1715)와 두터운 교분을 나눴던 이하곤(1677~1724)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이 같이 묘사했다. 윤두서 자화상이 보여주는 사실성과 함께 지식인의 기개를 읽을 수 있다.

윤두서의 서거 300주년을 기념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기획 ‘공재 윤두서’전(2015년 1월 18일까지)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개막한 이번 전시에는 지난 26일 현재 모두 5만6069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개막 후 첫 휴일인 10

월 26일에는 2552명이 다녀가는 등 올해 국립광주박물관 일 최고 관람객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 속도면 지난 2012년 12만1673명이 다녀가는 등 큰 관심을 받았던 기획특별전 ‘외규장각 의궤’(2012년 4월 24일~6월 24일)와 비슷하거나 많은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의궤 전시는 그해 열린 전시 관람객 인원에서 국내 2위, 아시아권 15위, 전세계 154위를 기록했으며, 국립광주박물관이 영국 아트뉴스페이퍼가 선정한 ‘2012년 세계 100대 뮤지엄’에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 전시를 관람한 이하진(여·32)씨는 “공재의 자화상을 보면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나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기기 급

급한 정치인들이 꼭 와서 보고 반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우(45)씨는 “전시를 관람하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윤두서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말레의 ‘이삭줍기’와 윤두서의 풍속화인 ‘나물 캐기’를 비교해서 쓴 글을 읽었다”며 “직접 전시를 보니 백성과 그들의 노동의 숭고함을 소중하게 여긴 두 작가의 작품에 담긴 정신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면상을 취한 독특한 구도와 강렬한 눈빛, 인상적인 수염 등 극사실적으로 그린 자화상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자화상이 그의 내면세계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윤두서의 자화상이 해외에 출품됐을 때도 많은 외국인들은 조선 후기 예술사에 새로운 시대를 연 공재의 인간상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유교적 성인을 이상으로 삼아 구도적 자세로 일관했다. 특히 뛰어난 식견을 갖고 당시의 세상을 자신으로 책임으로 자각한 인물이기도 하다. 자화상은 이런 그의 내면이 잘 반영된 작품이다. 그래서인지 공재의 자화상에서는 묘한 슬픔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는 24세에 관직에 올랐지만 당쟁이 격화돼 벼슬을 포기하고 고향인 해남에 귀향해 학문과 시서화로 남은 생애를 보냈다. 비록 벼슬에서 멀어졌지만 덕분에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됐다. 윤두서의 자화상에서 조선 지식인의 웅골한 기개를 엿볼 수 있다면 ‘나물 캐기’와 ‘목기 깎기’, ‘짚신 삼기’ 등 그의 풍속화에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된 선비의 모습이 읽히기도 한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570-70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무용으로 만나는 겨울왕국

빛고를 춤축제 12월 1일 문예회관... 시상식도

재즈 댄스, 발레, 현대무용으로 만나는 ‘겨울왕국’.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제9회 빛고를 춤축제 ‘겨울왕국’이 12월 1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많은 인기를 모았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다양한 춤 장르로 선보인다.

제1장 ‘엘사와 안나의 어린시절’은 kdc무용단(안무 김성희)이 재즈 댄스로 풀어내며 2장 ‘엘사의 대관식’은 김미숙하나무용단(안무 김미숙)이 한국무용으로 선보인다. 그밖에 에워발레단(안무 박보인·발레), Black J댄스아카데미(안무 성지현·재즈댄스), 서영무용단(안무 서

영·한국무용), 비상무용단(안무 박종민·현대무용), ‘M댄스아카데미’(안무 문현화·댄스스포츠)가 참여한다.

한편 이날 공연 전에는 광주무용협회 송년 무용인 시상식을 갖는다. 박금자상은 김유미 광주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 수상하며 광주무용인상은 김미숙(김미숙 하나무용단)씨가 받는다. 신인상 수상자는 김수영 광주무용협회 사무국장이다.

그밖에 광주무용협회와 오랫동안 작업을 같이 해온 무대 디자이너 고(故) 이대업씨와 무대 연출가 조주현 씨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문의 062-514-2136.

/김미은기자 mekim@



꽃이여! 걸어 나오라

행복어울림합창단 세번째 무대...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지난 2002년 4월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노래를 배우던 이들이 행복어울림합창단을 창단했다.

“인생 사계(사랑 어울림)”, ‘아, 어머니’를 주제로 2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졌던 행복어울림합창단은 정기연주회 이외에도 전남대 개교 기념 행사 등에 출연했으며 광주시가 주최한 제6회 여성합창축제에도 참여했다. 입단 문의 010-3631-3101.

희망을 전하는 의미를 담은 노래를 선곡했다. 레퍼토리는 ‘가을 그리고 강물’, ‘그대 있음에’, ‘엘도라도’, ‘꽃에게’, ‘꿈’, ‘가시나무새’ 등이다. 지휘는 김선주씨가 맡았으며 피아노 반주는 정혜련씨다.

행복어울림합창단은 정기연주회 이외에도 전남대 개교 기념 행사 등에 출연했으며 광주시가 주최한 제6회 여성합창축제에도 참여했다. 입단 문의 010-3631-3101. /김미은기자 mekim@



박승현 작 ‘날다’

‘불휘기쁜’ 정기전 무등갤러리 12월 3일까지

미술그룹 ‘불휘기쁜’(회장 박승현)은 오는 12월 3일까지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제13회 불휘기쁜’ 정기전을 연다.

2000년 창립한 불휘기쁜은 전남대 출신으로 구상 계열의 순수회화를 추구하고 있는 작가들이 만든 그룹이다.

불휘기쁜은 설치와 영상 등 현대미술의 거센 흐름 속에서 순회회화의 미학을 추구하기 위해 전차하고 있다.

특히 남도 지역의 구상을 발전 시키고, 새로운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300여 명의 대작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고문인 정승주 전 전남대 교수를 비롯한 박주하·조현·송연식·박승현·박세경·박홍수·한태희 등 회원과 준회원이 정다운·조민서·김빛나씨가 함께 한다. 문의 062-236-25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주) 대원여행사. Contact: 062)526-7000, www.daewontour.com. It features a train and scenic views.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train tours. It lists two routes: 12월 5일(금) 철원 (Train No. 100) and 12월 24일(수) 남이섬·춘천 (Train No. 100). It includes departure times, destinations, and prices.